

노동자 이민에 관한 연구위원회
Committee to Study the Migration of Workers

리포트의 개관

- I. 배경
- II. 도입
- III. 역사적인 시각-이민교회
- IV. 노동자 이민에 관한 현재 이슈들의 정리
 - A. 미국으로의 이주
 - B. 캐나다로의 이주
 - C. 결론
- V. 현재 북미의 이민법과 정책의 정리
 - A. 캐나다의 현재 이민법과 정책
 - 1. 영주권자와 방문자
 - 2. 난민 확인 시스템
 - 3.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들
 - B. 미국의 현재 이민법과 정책
 - C. 요약
- VI. 이민이 끼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향
- VII.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
 - A. 도입
 - B. 구약
 - C. 신약
 - D. 신학적인 고찰
 - 1. 교회
 - 2. 정부
 - 3. 개인 성도들의 지지
 - 4. 로마서 13 장
 - E. 결론
- VIII. 권고

부록

부록 A: 캐나다로 간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다섯 인터뷰

부록 B: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인터뷰

부록 C: The Lighthouse Toronto: 불법 이민자를 위한 우리의 사역

부록 D: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의 사례

부록 E: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참된 이야기

I. 배경

Zeeland 노회에 속한 연구위원회가 2006 년도에 한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서 노동 이민자들에 관한 이슈가 총회의 어젠다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지역교회는 주로 히스패닉 노동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몇 년간 사역하였다. 그 교회는 영어교육, 성경공부와 때로는 이민과 노동자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그들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교회는 그러한 노동 이민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으로 인도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쉽게 영접하지 않는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한 나라에서 적법한 신분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함에 위배되는 지에 관해서 노회에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자문에는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와 그들의 필요라는 폭넓은 이슈들이 교회의 징계라는 시각으로 그 주제를 연구함에 의해서 묻히고 말았다. 2007 년도 총회는 이 이슈를 다룬 Overture 6 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표현하는 내용과 방식이 야기하는 상처와 포괄적이지 않는 언어와 편협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2007 년도 총회는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법한 신분이 없이 살아가는 노동 이민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인식하였다. 그 결과 총회는 적법한 신분이 없음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복미 개혁교회가 대처해야 하는 지를 연구하고 권고를 제출하도록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I. 도입

본 위원회가 받은 임무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교회의 사역에 관련하여 노동 이민자들의 이슈를 연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민과 관련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제안하는 것”이다 (*Acts of Synod 2007*, p. 596).

2007 년도 10 월부터 2009 년도 5 월까지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는 연구의 과정이 여러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 위원회는 많은 관련 당사자들과 이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민자들을 인터뷰했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CRC 의 다양한 사역기관들을 만나서 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리포트는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 이슈에 대한 연구위원회의 주의깊은 연구의 결과이다.

III. 역사적인 시각-이민교회

북미 개혁교회(CRCNA)는 이민자들의 공동체로부터 탄생되었다. 네덜란드의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된 성도들이 1840 년대에 처음으로 미시건과 아이오와에 정착한 후 20 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그 때로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이민 물결을 인하여 본 교단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단이 되었다. 현재 본 교단이 북미의 다문화적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본 교단은 다시 새 이민자들,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목회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CRC 는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동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적 자산을 현재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본 교단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캐나다의 성도들은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캐나다로 온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물결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기 시작한 후 많은 네덜란드인들은 신대륙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집을 가지며, 자신들의 농장을 가지고 살 꿈을 가지고 이민왔다.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직업, 문화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는 동시에 이민자들의 재정후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었다. 재정후원이 이민을 위한 요구사항은 아니었을 때에도 그것은 많은 이민자 가족들을 도왔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그들은 도착 이민 지위¹를 부여받았다. 5 년이라는 최소 대기 기간이 지나면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다. 이민자들이 이러한 이민관계 사회에 관련된 배경은 바로 기독교 신앙과 교제였다. 1950 년대부터 네덜란드로부터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온 사람이나 와 있던 사람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들이 캐나다 CRC 교회에 연합하면서 CRC 교회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나 캐나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민은 지속적으로 장려되었다. 네덜란드 이민자 커뮤니티도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들 이민자들의 삶은 특별히 1951-53 년도에 부흥한 북미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랜드래피츠에 위치한 교단본부의 국내사역부에 의해서 파송된 목사들은 캐나다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목회 영역을 넘어서까지 지원하였다. 캐나다로 온 이민자의 성공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온 동기, 커뮤니티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이민자를 지원하는 교회의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교단은 또한 1960 년대에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난민들이 미국으로 유입될 때에 “이방인을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실제로 교단의 구제기구인 CRWRC 의 첫번째 사역에 마이애미에서 쿠바 난민을 지원하고 돕는 일이 포함되었다. 그 때에 많은

¹ 영주권

쿠바 난민들이 교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교단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CRC의 파들력에 처음으로 검은 콩과 쌀밥이 포함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자원하는 CRC의 성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와 능력을 새로 가입한 커뮤니티에 제공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현재 교단은 전보다 훨씬 힘있고, 보다 다양하며, 역동적인 커뮤니티가 되었다.

교단은 또한 1970년대에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등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남아시아의 난민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을 영접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서부 아프리카로부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피난처를 찾으려는 난민들이 도착하였다. 현재는 한미노회가 한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본 교단의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필요에 응답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사명으로 인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CRC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한 강해졌다.

IV. 노동자 이주에 관한 현재 이슈들의 정리

A. 미국으로의 이주

현재 글로벌 경제구조로 볼 때에, 한 나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는 적어도 서반구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비록 그것이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의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나라들이 열악한 경제조건 하에 처해 있고 이웃해 있는 미국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가난이 그들을 떠밀어내어 조국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더 많은 수입, 무상 교육, 그리고 조국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들에 의해서 이민자들이 남미로부터 북미로 오고 있다.

이민자마다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민을 와야 하는 이유는 매우 참혹하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 사람당 수 천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남쪽 국경을 넘어 들어오기 위해서 며칠동안 사막을 건너기도 하며,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서 여러 번 같은 경험을 반복하기도 한다. 국경을 넘기에 가능한 곳이 특별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연간 수 십명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월경은 계속 되고 있다. 어떤 이민자들은 중미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부터 기차 지붕 위에 타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움직이는 기차에 의해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기도 하고, 갱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도둑에 당하고, 강간을 당하며, 며칠씩 잠을 못자는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에 당도하던지 상관없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아무런 재산이나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남미인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적합한 비자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취득하기 까지 몇

년 썩을 기다려야 한다. 어떤 이민자들은 가족의 초청에 의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다. 어떤 이민자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의 신청서가 처리되기도 한다. 적법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많은 이민자들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제도에 있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신분을 보장받는 길을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 미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발견되면 십년간 미국에의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 부모와 그의 자녀들이 그 십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한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참혹스럽다. 이민자들에게 적법한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입국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다. 실상은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제도나 절차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법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도 밖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적법한 신분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원들을 두려워하며 산다. 많은 이들이 범죄의 위협보다 신분이 탄로남으로 인해서 받을 위협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범죄의 행위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부당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사는 것은 신분이 탄로남으로 추방되면 자녀들과 이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일부일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위협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커뮤니티 사역자들은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법률에 따라서 미국의 시민이 된다. 이러한 미국의 법은 한 가족 안에 신분이 다른 이민자의 경우를 만들고 있다.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매일 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아들과 딸은 그들이 가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와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추방되는 경우에 부모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속하여 교육을 받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에 남겨둘 지, 아니면 가난해질 삶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언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음 자신들을 조국으로부터 몰아냈던 가능성이 없는 삶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데려가야 하는 지 가슴을 찢는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처음 조국을 떠날 때에 그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여 또는 모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남겨놓기도 한다. 가족을 남겨놓고 떠나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영원히 이별하게 되기도 한다. 지난 십여년간 적법한 신분이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조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탄생, 졸업, 아픔, 초상 등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그들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며, 떠난 사람들은 생소한 이국 땅에서 외롭게 기쁨을 즐기고 외롭게 슬픔을 참아야 한다. 자식과 부모에게 남는 이러한 상처는 나중에 회복시키기 불가능한 것이다.

CRC에는 많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으로 이민온 이유와 방법이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민온 나라에

상관없이 적법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비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사십 년 전에는 가난을 탈피하고자 왔다면, 현재 한국인 이민자들은 더 나은 교육을 찾아서 오던지 또는 이혼이나 장애로 인해서 더 열려있는 문화를 찾아서 오고 있다.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은 단기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그것이 만료된 후에도 체류를 계속하고 있다. 통계수치를 보면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약 절반이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현재 CRC 한인 목회자들은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음식이나 쉼터를 제공하기도 하며,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한다. 한인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보다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더 많이 알고 있다.

B. 캐나다로의 이주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미국의 제도에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한 가지 특별하게 다른 점은 절차상의 빠른 속도이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건설현장과 같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들의 서류를 처리한다. 그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합한 사람들은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캐나다에 도착하지만, 그것은 단지 단기간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좀 더 영구적인 신분으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없다. 그들은 대부분 취업의 기회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오기 때문에, 삶에서 필요가 발생할 때에도 캐나다를 떠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얻은 고용은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기 쉽다. 사실 많은 이민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착취되는 악순환에 갇혀있다.

캐나다에도 불법으로 입국해서 난민지위를 신청하지만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다. 난민 신청자들이 입국할 때 그들은 핍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가진다. 그 과정은 보통 몇 년의 기간을 요구한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커뮤니티에 정착하게 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직장을 얻으며, 아이를 낳기도 한다. 종종 그들의 신청이 거부될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감을 두려워하여 불법으로 캐나다에 체류하게 된다. 물론 그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착취에 직면하게 된다. 자기 나라에서 핍박과 폭력의 두려움을 피해서 탈출했지만 그들은 이제 추방될 지 모른다는 새로운 공포에 쌓이게 되어 스스로 고립된다.

C. 결론

CRC 교회에 첫 성도들이 모인 이후 하나님께서는 본 교단을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이방인을 영접하라는 말씀을 수행하는 가운데, 적법한 신분을 갖추지 않은 이민자들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감싸며,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명을 가진다. 그리고 반쪽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 성급한 결론이 만들어지는 곳에, 그리고 옳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갖는다.

우리 교단은 “우리 안의 여러 이방인들”이 현재의 교단으로 변화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현재 교단의 1,057 교회는 61 개의 다문화 교회, 86 개의 한인교회, 28 개의 히스패닉 교회, 8 개의 중국인 교회, 8 개의 라오스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인, 필리핀인, 프랑스인, 헤이티인, 몽골, 인도네시아인, 베트남인을 포함한 다양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40 년대에 CRC 가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이민교회”였다면, 현재는 세계의 여러 나라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교회가 되었다.

현재 우리 교단이 이방인을 영접하면서 깨달는 것은 그것이 다만 우리의 소명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이민교회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이민자들을 섬기는 독특한 자질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V. 현재 북미의 이민법과 정책의 정리

오랫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적법한 절차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의 검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특별히 2001 년도의 뉴욕 무역센터의 공격 이후에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이후에는 이러한 노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불완전하거나 모순되는 법과 정책이 드러났다. 미국과 캐나다가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유형을 확인하고 규제함에 협력을 하지만, 입국하는 사람들, 특별히 불법입국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상이한 점들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A. 캐나다의 현재 이민법과 정책

2006 년도의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인구는 3 천 3 백만명이다. 여기에는 시민과 영주권자각 포함된다. 시민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캐나다 시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낳은 자녀,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난민은² 연속적으로 3 년을 캐나다에 거주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주권자와 방문자

캐나다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캐나다의 시민이 되는 길은:

- 취업이민이거나 사업/투자이민과 같이 경제적인 이민자
- 캐나다에 사는 가족이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초청
- 난민으로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외국에서 국내의 후원을 받아서 신청하거나 또는 자신이 국내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

² 그들은 보호받는 사람들 (protected persons)로 불리운다.

- 가정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민자와 난민 이외에 캐나다는 매년 상당한 방문자를 받는다. 그들은 관광객, 학생, 또는 단기간 노동자로 입국한다. 캐나다는 계절 농업종사 노동자 프로그램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을 운영하는데, 그것은 캐나다의 농장에서 약 반 년간 노동하기를 원하는 멕시코와 캐리비안 국가들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동자와 학생은 방문비자와 함께 노동허가와 학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그들의 비자가 만료되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캐나다는 매년 약 25 만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인다. 그중에서 60%가 경제적 취업의 이유로 40%가 가족초청 또는 인도적인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한다.

2. 난민 확인 시스템

캐나다의 난민 확인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시스템이기는 해도, 그 결정은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며 의문이 있는 결정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난민 또는 보호받는 사람의 신분은 보호를 요청하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 (in-land)과 정부나 개인 스폰서에 의해서 외국으로부터 선별을 받아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사람 (re-settled) 등 두 가지 케이스에 주어진다. 입국해서 난민지위를 요청하는 사람은 준법원적인 성격을 가진 이민/난민 위원회에서 신청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 선별되는 난민은 국가가 유엔의 난민 커미셔너가 협력해서 결정한다. 정부와 함께 개인³도 난민을 선정해서 캐나다에서 살도록 할 수 있다. 캐나다에 도착하는 난민은 도착과 함께 영주권이 주어진다. 2009 년도의 통계를 보면 캐나다는 매년 12,000 명의 난민을 받고 있다.

3.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들

캐나다에는 현재 20 만에서 30 만명의 사람이 적법한 신분이 없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체류기간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고 있거나 난민 지위를 거부당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며 살고 있으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아래 살고 있다.

B. 미국의 현재 이민법과 정책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대체로 이민자⁴이거나 비이민자로 입국한다.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지위를 받지만, 비이민자의 경우는 입국하면서 90 일부터 몇 년 간의

³ 개인이 난민을 스폰서할 수 있는 캐나다의 법인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Program in Canada 를 Citizens for Public Justice 의 웹사이트에서 보라: <http://cpj.ca/refugees/index.html?ap=1&x=102947>.

⁴ 이민자 입국에는 망명이나 난민과 같은 형태도 있으나 그러한 케이스는 매우 적다.

특정하게 정해진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이민자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국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투표권만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지만, 비이민자의 경우 비자의 종류가 규정하는 활동만으로 제한된다.

비이민자의 대부분에는 학생, 여행객, 사업상 방문, 여러 형태의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특정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투자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매니저와 간부들을 포함한다.

비이민 비자에는 일정한 숫자에만 (2008 년도에는 66,000 명) 부여하는 비농업 계절 노동자 비자인 H-2B 와 숫자가 제한되지 않는 농업계 노동자 비자인 H-2A 가 포함된다. 매년 책정되는 H-2B 비자의 숫자는 수요에 비해서 적지만, H-2A 비자인 경우에는 최소 노동시간과 무상 거주지 제공 등 고용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적용되는 H-2A 비자는 50,000 명 정도이다.

이민자를 위한 비자는 가족초청과 취업 두 가지로 분류된다.

비자나 미국 이민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입국한 사람은 “검사없이 입국한 사람”(entered without inspection)으로 분류된다. 현재 법상으로 볼 때에 검사없이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인 지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검사없이 입국한 사람과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언급하는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 또는 “불법 이주자”(unauthorized migrants)⁵의 현재 추산 숫자는 천이백만-천사백만 사이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히스패닉계 사람들로써,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⁶ Pew Hispanic Center 의 2009 년도 리포트는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러한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은 그러한 정보들 중 중요한 것들이다:

- 불법 이민자의 가정은 주로 성인이 적법한 신분이 없고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다. 470 만명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1390 만명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가정에 살고 있다.
-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민자의 숫자는 1990 년대 이후 합법적인 이민자의 숫자를 추월하고 있다.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
-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민자의 수가 가장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애리조나, 북캐롤라이나, 유타, 콜로라도 인데, 이들 주는 전통적으로 이민과 상관없는 지역이었다.
- 최근에 적법한 신분 없이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그중 사분의 일은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은 미국 인구에 비해서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⁵ Unauthorized migrants 는 미국 시민권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장기 체류나 취업을 허용하는 임시 체류 허가를 취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⁶ 2008 년도 4 월 12 일에 확인한 NPR 웹사이트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4703307>)의 현황. 더 상세한 정보는 Pew Hispanic Center 웹사이트인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61.pdf> 에서 볼 수 있다.

-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의 3%가 농업에, 33%는 서비스업에, 16%는 건설과 관련된 직업에, 그리고 17%는 제조업과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 적법한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은 그러한 신분을 갖춘 이민자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수입을 얻는다.⁷

C. 요약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도는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한 절차는 복잡해서 종종 이민관계 업무는 비도덕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게 한다. 이민 수속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수속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례는 넘쳐난다. 어떤 신청자들은 그들의 수속을 대행하도록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관계자들이 수속을 잘못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어떠한 제도도 완전하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법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 잘못된 설명, 사기, 비인간적인 절차나 태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위반행위가 발행해서 환영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불행하게도 제도와 규정을 확립하는 공직자들은 영접함보다는 국경규제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VI. 이민이 끼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향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이민자들의 유입 이후에 교회와 사회의 삶은 매우 달라졌다. 경제적인 불균형, 가난, 갈등, 그리고 인구의 변동은 사람들의 이동에 변화를 일으켰고 복미나 공업화된 서구로 향하는 이민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유엔의 난민 관계자는 최근의 동향으로 약 천백만에서 천이백만 명이 자기 나라로부터 망명을 기도하거나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고 하며, 대략 이천육백만 명이 자기 나라 안에서 타의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한다.⁸ 국제화 되는 경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인 요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덜 개발된 나라로부터 더욱 개발된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개발된 나라들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는 자신들의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서구의 나라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또한 덜 개발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떠나올만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의 남반구로부터 발달된 북반구로 지속적인 노동력의 유입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2005 년도의 미국 인구 이억구천육백만에서 2050 년에는 사억삼천팔백만으로 증가할 것이며, 82%의 증가는 이민에 의한 것일 것으로 Pew

⁷ Pew Hispanic Center 의 웹사이트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61.pdf>.

⁸ 2008 년도 3 월에 확인된 UNHCR 의 웹사이트, <http://www.unhcr.org/statistics/STATISTICS/4852366f2.pdf>.

Research Center 는 예상하고 있다.⁹ 캐나다의 예상도 비슷하게, 지금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7 년에 캐나다의 인구의 20%가 소수민족일 것이며 25%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¹⁰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증가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1970 년대를 시작으로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면서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호감이 사라지면서, 다른 이유들보다 더욱 인적 자본과 노동 시장의 수요에 근거해서 덜 개발된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와 임시 노동자의 숫자가 매우 증가하게 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이 교육을 받고, 잘 준비된, 기술을 갖춘 경제적인 이민자와 가족들이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신청해서 일하고 체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상 두 나라는 그 신청자 수의 연간 쿼타를 정해서 제한하고 있다. 두 나라는 또한 이미 입국해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가족을 초청함에 있어서도 쿼타를 적용하고 있다. 영주권 비자의 이민 이외에 캐나다는 농업과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숫자를 임시 노동 프로그램으로 유입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또한 학업, 자원봉사, 가족 방문, 또는 관광을 위해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케이스들의 사람들이, 그리고 난민 지위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원들을 가지고 오므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새로운 나라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헌을 하기도 한다.

적법한 신분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에 들어와서 적법하지 않게 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약없이 삶을 즐길 수 없으며 제도의 모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몇몇 주에서 그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저축예금 구좌를 가질 수 있으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신분증을 갱신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위태로운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접대업, 그리고 건축현장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들은 부도덕한 고용주의 쉬운 착취의 대상이며, 그들 개인의 인간적인 가치는 고려되지 않은 단지 국가의 손쉬운 수입원으로 인식되는 제도의 피해자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므로 또는 북미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갈 경우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록 그들이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지만,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나라는 그들이 떠날 경우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VII.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배경

A. 도입

⁹ Pew Research Center 웹사이트: <http://pewhispanic.org/files/reports/85.pdf>

¹⁰ Statcan 웹사이트: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11-008-XIE/2005003/articles/8968.pdf>

노동자들의 이주라는 이슈를 다루기 앞서서 거기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현재 북미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모두 들어맞는 답을 성경이 주리라는 기대는 너무나 순진한 기대이다. 이런 이슈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성경에서 증거 형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구약에서,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주된 원리를 찾을 것이며,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현대의 이슈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환경에 적합하게 주셨던 신정주의적인 명령을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의 구조, 법률 그리고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의 어느 나라도 고대 이스라엘과 동일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현재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동등한 구조를 재도입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지도 않았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각 나라들이 가지는 상이한 점을 초월하는 영적인 커뮤니티로서 본질적으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교회적인 상황에서 노동자의 이주라는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정책을 옹호하면서 정부당국에 촉구도 하지만,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을 모델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도들 양 쪽 모두 구약성경을 근거로 특정 정책이 하나님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간음을 범죄로 취급했으므로 현재의 정부도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성도들은 보수적인 성도들이 “도덕을 법제화”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가난과 공공복리에 대한 특정한 정책을 옹호한다. 양 쪽 모두 성경의 폭넓은 지침으로 현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양 쪽 모두 이스라엘의 법이나 정치적인 구조를 현재 사회나 정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노동자들의 이주를 고려함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스라엘과 현재 국가 사이의 차이와 경계를 허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성도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경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슈들을 생각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해석적인 차이를 기억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율법이 창조세계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한, 공의를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근거로,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 현재 교회 커뮤니티로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앞으로의 내용은 북미의 노동자 이주의 이슈에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 리포트에서 “이방인의 신학”을 전체로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구약과 신약이 외국인과 이방인을 다름에 있어서 일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이 어떠한 것일지 그 윤곽은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구약

창세기 1-11 장에서 창조 드라마를 기록한 후에 성경은 아브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 사래에게 허락하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워지고 구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옮겨가시며, 외로운 한 가족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로 발전해 가신다. 창세기 12 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람이 하란 땅에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는 거기서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거하는 곳에 계속 거하라. 너는 이미 잘 출발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가축과 땅을 주고 늙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여 하란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속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더라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나라” (창세기 12:1)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아브람의 자손을 번창시키실 터이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 할 일은 아브람이 새로운 땅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떠나서 떠나면 곳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주민이 되는 이었다. 그 이후 모든 이민자와 난민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아브람은 자신을 허약하게 만드는 낯선 곳으로 보내어졌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지 열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가 보내어진 땅에 기근이 심한 것을 알게 된다. 기근을 견딜 수 있는 비축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보내셨던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창세기 12:10) 아브람과 가족은 이집트로 가게 된다.

이집트에서 굶주린 그의 가족은 양식과 물을 얻었지만, 또 하나의 낯선 땅에서 그들은 더욱 더 취약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집트인들은 사래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바로에게 권하여 자기의 첩을 삼도록 권했다. 자신의 아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는 아브람의 이어지는 거짓말로 바로는 그에게 많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바로의 집에 질병을 보내셨다. 결과적으로 화가 난 바로에 의해서 아브람은 다시 한번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20 절이라는 짧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전에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던 삶을 떠나서 이주민이 되어야 했던 아브람은 새롭고 낯선 곳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아브람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시조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아브람의 경험 가장 깊숙한 곳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된 그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그의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후의 모든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이주함으로 인해서 취약해진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란에 건설하지 않으신 이유가 된다. 아브람과 사래를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필요를 배우게 된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처음 약속이 주어진 지 (그 때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25 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이 태어난 이유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죄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본 리포트의 목적을 향해 진행하면서 이 시점에서 지적할 것은 이민의 경험, 그리고 이주자와 난민의 경험이 성경기사의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아브람과 사라와 그의 가족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민자가 되었다. 그들을 이민자가 되게 한 이유가 독특하기는 하지만,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겪는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떠나야 했던지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마치기 전에, 그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점 중에서 자주 간과되어온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구입한 것이 그가 나그네일 때에 그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것이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4).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죽음이나 슬픔을 당할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 행동에 의존하게 된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조로 부름을 받은 결과로 발생한 아브라함의 모든 어려운 경험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 깊이 인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지낸 후 몇 세대가 지난 후에 그의 자손들은 또 다시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들이 거하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은 바로 다음가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요셉의 가족뿐 아니라 이집트와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였다. 아브람과 그의 자손이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식량 감독으로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곤경이 처해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 이집트에서 장기간 정착한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요셉의 가족에게 또 다시 곤경이 찾아왔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고 그의 시신이 입관됨을 기록하고 있다 (50:26).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시신이 입관됨을 기록한 몇 절 앞에 요셉이 그의 가족이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때에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거기서 매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강성해짐을 두려워한 바로의 억압으로 노예로 사는 암담한 시대를 지나게 된다. 이러한 고난과 억압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다. 출애굽기 1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암” 즉 국가로 불리우게 된다. 본 리포트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했는 지 상세한 정보를 열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경험이 오는 세대의 의식 속에 간직되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자의 의식은 율법의 정신에 잘 스며있음을 볼 수 있다. 모세오경의 많은 기록들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삶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율법과 삶이 그들의 조상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 경험의 기초 위에 규정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억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에 의해서 백성은 지속적으로 두 가지 가르침을 받는다. 첫째, 율법이 규정하는 축제일,

예를 들어서 유월절과 같은 모든 축제일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 가장 취약한 자들, 과부, 고아와 이방인을 자신의 가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안식일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안식하도록 되어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재차 가르쳐질 때에, 안식일의 근거가 이집트에서 억압받으며 살던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0:11 이 창조기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신명기 5:15 은 안식의 근거로 이집트에서의 억압된 삶으로 안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삼고 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다.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십계명에 있어서 이것이 유일한 차이이다. 이 둘을 종합해서 보면, 안식은 창조와 구속 둘 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면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모압땅에서 율법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의 자손이므로 직접적인 종살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직접적으로 억압된 삶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 나라의 공동체적인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장차 올 새 세대의 삶의 지침이 되는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모세의 위대한 설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으로 살던 그들 조상들의 공유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할 때이다. 모세는 후에 시편 24:1 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의 땅과 그 안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이스라엘이 임대인으로서 누릴 것들이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며, 그들 중에 같이 살 이방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율법을 재해설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함을 알리면서 마치고 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신의 백성이 따라서 형성되어야 할 성격은 레위기 19:33-34 에 잘 기록되어 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은 모세오경에 흩어져 있는 내용의 중요한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이란 의미의 히브리어인 “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은 외국인과 공유하고,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만큼 외국인도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어길 때에 처벌될 것을 가르치면서 29 번 나타나고 있다.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누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중에 살게 될 이방인과 외국인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레위기 25:23 의 말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을 듣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 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친절과 자비를 베푸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들도 과거에 세상의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이었을 때에 온갖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반영하게 된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과 보호 이외에 더 많은 혜택과 보호를 베풀도록 요구되었다.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과부, 고아와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David Holwerda 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빈곤에 격노하시고 그것을 도말하기를 원하신다고 구약은 가르친다.”¹¹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다.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족장시대에서 가족의 가장이 없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과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쉽게 소외되며 그 결과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공적으로 허락된 국적이나 땅이 없이 사는 외국인 체류자들도 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소망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들은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명령하셨다. 예를 들어서 추수법은 농부와 포도원 일군에게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이 와서 남은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곡식과 포도를 밭에 남겨둘 것을 명령한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17-20 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을 분명하게 하신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우리가 요약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구약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다. 구약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 부여하시는 다른 종류의 율법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외국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영적인 도전이 되기도 한다.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이나 그런 외국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신 영적인 삶의 규정을 무너지게 한다. 외국인들이 종교적 혼합주의나 금지된 규정을 완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J. Charles Hay 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에세이에 쓴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정착하고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혼합주의의 위협과 모세로부터 전해져오는 전통이 무너지길 위협이 다분했으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백성을 지속적으로 심하게

¹¹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3, Geoffrey W. Bromiley, General Editor, p. 905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6).

책망하였다. Hay 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정죄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결론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외국인 여인과 결혼한 “죄인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긴 리스트일 것이다. 에스라는 마지막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에스라 10:44)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어떤 버전은 “그리고 그들의 그 여인들을 자녀와 함께 내어쫓았다”를 더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0:17)라는 기록을 보게 된다. [영어성경 NIV 에는 “they finished dealing with all the men”으로 번역되어 한글성경의 다만 “조사하다”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그들을 어떻게 가혹하게 다루었는지를 암시한다 (J. Charles Hay, “The Bible and the Outsider,” Presbyterian Church of Canada 의 Inter-Church Committee for Refugees, Toronto, 1996).

지금 살펴본 보조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구약성경의 주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이와 비슷하게 위에 살펴본 구약의 내용이 마치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훨씬 주된 내용, 즉 외국인에 열린 태도를 취하라는 구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여 보호주의적인 결론을 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위에 요약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에 관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그들이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전체 규례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들은 용납되고 환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소수라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커뮤니티의 공식적인 일부로 체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이방인이 공식적인 일부로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도 폐지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나 동일한데,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공포를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매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실상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이방인인 자신들을 위해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섭리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준다. 외국인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위협이 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에 용납되어야 하며 그 안에 그들과 비슷하게 취약한 과부나 고아와 같이 특별한 지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이 구약성경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아모스, 미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서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을 새로운 형태로 보게 된다. 거기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환대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켄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모스 2:6-7).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이사야 1:15-17).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억압을 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의 공포를 기억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 것을 요청하신다. 이전에 억압을 받았던 사람이 종종 자신이 받았던 부당함의 화풀이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돌리기도 함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누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려움 끝에 최근에 컨트리 클럽에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데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신약성경에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 백성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을 사랑과 공의로 대할 가장 뚜렷한 예는 룻기이다. 룻기는 사회에서 누가 여러 면에서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우선 룻은 모압여인으로 그의 시모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그녀는 낯선 외국인이었다. 둘째로, 룻이 이스라엘의 남성과 결혼을 했다해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땅이나 재산을 청구할 것이 없는 과부였다. 세째로, 이 두 가지 환경으로 그녀는 가난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그녀는 살 수 있었다.

룻의 이야기는 공허하고 쓴 삶으로 시작하면서 불행하게 마칠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외국인을 용납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환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이 추수법을 충실히 행해서 룻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였다. 보아스는 또한 룻에게 특별한 환대를 베풀어 추수 당시 당할 수 있는 강간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일꾼들이 일하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해가 될 수 있는 국제결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룻과 결혼하여 친족회복자 (kinsman redeemer)가 되어 룻의 장래를 보장하였다.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아스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다. 그도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취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그들의 참혹한 삶으로부터 구원했을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가계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다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는 그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함에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 룻을 포함할 매우 좋은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룻 개인의 위치는 신약성경으로 옮겨가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C.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어지는 그의 사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구속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 대하는 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근본적으로 이방인, 이전에 누구도 대해보지 못한 종류의 이방인이었다. Eugene Peterson 은 요한복음 1:14 를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사람들의 이웃으로 옮겨오셨다”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은 그러한 존재를 안적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대의 가장 적은 자, 마지막인 자와 소외된 자들에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요한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신의 백성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1:11).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에서 시작한 몇 가지 주제들을 이어가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최근에 영접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에서 시작된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에 연결함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주제는 1:23 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7:14 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소명으로 마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인하신다.

마태복음 1:25 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마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 하실 것인지 약간의 배경을 언급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도달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했던 많은 이방인들의 영향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 많은 현대의 독자는 마태복음의 시작에 나오는 족보를 지루하고 책을 시작하는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태는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유대인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또한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알았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족보에는 어떠한 여인의 이름도 포함하지 않았다.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라, 라헬, 리브가, 그리고 레아와 같은 유대민족의 위대한 여인들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마태는 매우 이례적으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등 네 명의 전혀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하였다. 충격적이게도 이들 중 셋은 이스라엘 밖의 여인들이고, 또한 셋은 심각한 스캔들에 연루된 여인들이다. 다말은 그의 시부인 유다와 동침한 여인이다. 라합은 멸망할 여리고 성의 창녀였다. 밧세바는 히타이트 사람인 우리야의 아내로 나중에 다윗왕의 압력으로 그의 부인이 된 사람이다. 마태가 이 족보에 어떠한 여인의 이름을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될 여인들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태의 목적인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진척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용서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과거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면서 마태는 복음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렇게 구성하면서 마태는 처음부터 복음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건조하거나 따분한 족보가 아니라, 은혜의 포괄성을 돋보이는 목적을 보게 된다.

그의 복음의 초두에 기록된 복음의 포괄성은 2장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요람으로 인도하면서 다시 강조된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에 포함된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절 행사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이국적인 성탄의 느낌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적이고 죄된 참여를 의미하였다. 성경은 동방박사와 점성술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유대 랍비가 쓴 글은 “동방의 박사로부터 배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문화로 하면 신문에 운세를 쓰고 별의 위치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바그다드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스럽게 추구하는 것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포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의미가 이미 유대의 커뮤니티에 포함된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복음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있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 그들이 헤롯을 방문한 이후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피신 사건은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난민의 상징이 되었다. 어린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피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피신하고 거기서 종살이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어린 예수는 살 곳과 음식 등에 있어서 이집트인들의 도움과 환대로 삶을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마태는 이러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종교적으로 불결한 나병환자,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에게 다가갔다. 예수께서는 종교의식적으로 불결한 시체,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멘스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에 의해서 불결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순결함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사회로 회복시켰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 쉽게 그들의 전통에 매여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죄하기에 조심하게 되었다. 좋은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현재는 자라야 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가지고 오신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 없거나 누룩의 알갱이같이 적을지라도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높이 사시고 제자들에게 남들을 용서함에 제한이 없음을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며, 그것으로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신다.

복음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의 잡히심 이전에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언급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종말에 이르러 어떻게 심판이 행해질 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방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양과 염소 모두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양은 그들이 환대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방문하여 위로한 대상이 예수님이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단지 배고픈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환대했을 뿐이다. 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그들과 시간으로 보내며 위로하였다. 마찬가지로 염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나 그들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은 한 그룹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찾았고 다른 그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양들이 한 행동은 그들이 만나는 취약한 사람들과 이방인을 사랑으로 대한 것 뿐이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 끝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아는 것 이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방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상이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들었던 가르침,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바, 하나님은 외국인과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취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분이라는 가르침의 현실적 성취이시다.

마태복음 외에도 복음의 포괄성은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비유만해도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르치고 있다. 누가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명료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6:10-31 에 기록된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가난한 자를 중시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들을 언급하심으로 성경의 권위와 지위를 세우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일깨워주신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한 사람의 영혼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31) 라며 거절하였다. 왜 이 세상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이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취약한 과부, 고아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지 모세오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너희 형제들은 이미 모세를 알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죽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유한 자의 영혼에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모세를 알고 있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취약한 자와 이방인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방인의 신학”에 대한 누가의 가장 큰 공헌은 10:25-37 에 기록된 예수님의 획기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해진 이 비유는 율법 전문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 전문가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의 명령을 가르치셨다. 그 사람은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고 물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바와 같이, 그 대답은 “누구든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좁지않고 넓다; 그것은 배제적이지 않으며 가능한 한 가장 포괄적이다. 그러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을 줄일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에 정면대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10:30 에서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언어로,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 아무나라도 괜찮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시작하신다. 한글번역의 “어떤 사람”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부터 그가 여리고 사람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로마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볼 때에 분명하지 않다. 저자의 의도는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던지 상관없이, 강도를 만나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다.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의 기대치않은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은 그의 행동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였다. 그는 버려진 사람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떤지, 그리고 그의 종교가 돕기에 타당한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는 그 사람의 강도당한 것이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생긴 것인지 아닌지 (안전한 시간에 여행을 했는지, 여럿이 함께 여행을 했더라면 좀 더 안전했을 것이다 등) 묻지 않았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질문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조심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으며, 그 버려진 사람이 도움을 받을만한 사람인지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를 보고 거기 응하였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마치기 전에 질문한 율법사와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의 생각의 바탕에 도전하신다. 이 비유는 율법사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연장된 의미의 대답이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목적하는 바의 가르침이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이 누구냐고?” 라고 예수님은 물으실 수 있었다. “길가에 버려진 아무라도 너의 이웃이다. 그가 바로 네가 너처럼 사랑할 이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10:36 에서 예수께서는 길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가고 물으신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율법사의 질문을 그에게 되돌리는 것이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우리의 할 일은 세상 넓은 곳에서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웃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의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묻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복음서는 포괄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에서도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관심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여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구조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다.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우리 안의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들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는 이 일을 어려워하고 있다. 누가 안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밖에 있는지, 더 넓게 본다면 누가 커뮤니티 안으로 초대를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방인을 교회에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과 베드로는 다투게 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다.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배운 베드로는 후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17) 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임을 알게 되면, 히브리서 11:13에서 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 복음은 바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브람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민자가 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역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계시록 7:9) 서서 찬양하는 비전으로 마치신다.

D. 신학적인 고찰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지금부터 우리는 폭넓은 신학적이고 실제적인 결론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아래의 분류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전체, 정부의 역할, 교회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역할로 분류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교회와 정부의 권위 사이의 관계가 논의되면 언제나 언급되는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연구할 것이다.

1. 교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취약한 이방인에 대한 성경 가르침의 요약은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에 일관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한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가르침은 어떤 이민자가, 그의 배경과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 상관없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그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마태복음 25:37)를 분별할 기회이며, 자신이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 기회가 된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을 환영함에 대해서 미국 카톨릭의 주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교황 바오로 6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결론짓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교회는 사람 중 누구도 어머니와 같은 돌보심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스스로 교회에 대적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교회의 적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냥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일치, 그리고 평화를 이룩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Welcoming the Stranger: Unity in Diversity*, United States Catholic Conference, Inc., 2000. p. 20).

지금까지 해설한 바에 따라, 현재 교회는 구약에서 계시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또한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취약한 이방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심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죄악이나 교회의 존재와 가르침을 위협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자신의 교제로부터, 멤버십으로부터, 그리고 성례의 실행에서 배척할 때마다 회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말과 행동으로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교회에 공공연하게 대적하지 않는 한 교회는 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공공연한 적을 가질 때에도, 교회를 향한 미움이 그 교회에 적극적인 핍박을 가져온다해도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회에 참여할만하도록 사람의 가치를 형성한다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따르려는 진정어린 마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성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구약 전체는 교회가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어야 할 질문은,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해서 자신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고, 법적인 보호나 사회적인 안전망과 같이 우리가 누리며 사는 보장을 전혀 가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안에 와서 살아야하도록 된 그 사람들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지낼 땅 한 조각도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들은 거기서 음식, 보험, 병의 치료, 주택, 그리고 가족을 장사지낼 땅과 같이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음이 제시하는 모든 소망과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이다. 구약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같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환경에서 취약하고 쇠외된 사람들은 바로 포괄적인 사랑으로 다가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만나셨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포괄적인 사랑은 자신들의 전통을 숭상하여 이방인들을 배격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반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의 능력은 강력하여 초대교회 사회의 가장 큰 장벽,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자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갈라디아서 3:28).

복음의 가르침과 능력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무너져야 할 장벽은 사람들의 이주에 관한 것들로서 언어적인 장벽, 인종에 관한 장벽, 사회경제적인 장벽, 그리고 국가적인 장벽들이다.

2. 정부

정부에 관한 신학적인 고찰은 윤리적인 생각을 동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고찰들이 위에 설명한 성경의 요약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에 관련해서 주요 주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두 나라의 법에 직접적으로 어긋나게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이다. 성경이 다른 나라로부터 온 이방인과 외국인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한 나라의 이민법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거기 관련된 범죄, 처벌, 그리고 국경강화와 같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Peter C. Meilaender 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의 사회에서 한 국가가 이민을 규정하는 법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는 여러 가지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신중하고 사려깊은 방법으로 공공의 삶을 규정하는 법을 수립한다. 이민법을 고려할 때에 정부는 자국민들을 위한 주택과 일거리가 있는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서비스와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실제적인 이슈들을 고려한다. 국가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Meilaender 의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우선적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당신의 두 자녀에게 더욱 사랑을 느끼고 당신이 만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당신의 자녀에게 더욱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놀이터나 수영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아이든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안다. 공공 수영장에서 당신이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 당신은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돌보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당신의 영향 안에 있는 그 아이의 존재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당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책임을 부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공 수영장이 문을 열 때마다, 당신의 자녀가 거기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당신이 수영장에서 보초를 서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이 거기 있을 때에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일을 열심히 해서 얻은 수입으로 여러 가지를 돌볼텐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보는 데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우선적인 의무는 당신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국가의 정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오직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국가가 다른 나라들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원조나 파병을 거부한다. 그러나 또한 모든 국가의 정부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자국민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는

자국민을 평안하게 돌볼 수 없는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평안한 삶을 나누어 주는 이민법에도 의무를 가져야 한다.

3. 개인 성도들의 지지

교회는 이민자들을 환대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환대만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안고 있는 이민 시스템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민에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 장지적인 안목으로 이민자들을 위해서 법의 제정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국가의 이민 정책을 좀 더 공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호의롭게 해서 더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미 본 리포트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캐나다에서도,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미 살고 있음이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이들과 젊은이들로 그들이 어릴 때에 미국으로 들어왔고 현재 몇 안되는 선택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정부는 또한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각, 즉 우리 가운데 와서 살므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의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그들을 향한 올바른 동정심에는 무엇이 그들로 현재 위치에 오게 하였는지를 이해함이 포함된다. 동정심은 또한 교회로 하여금 여러 방면으로 취약하고 희망과 위로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법을 어긴 자”는 먼저 회개하기 전에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양육사역을 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범법자요 죄인임을 잊은 결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을 환대하여야 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배웠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동정심으로 대해야 한다” 이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노라고 해서 모든 문제와 이슈를 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의 원리로 문제와 이슈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성할 수는 있다.

4. 로마서 13 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찰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권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로마서 13 장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바울은 7 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의 법에 순종하면서 정부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가르친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의 담당자가 하나님의 종과 같으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정부의 권세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마땅히 그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합법적인 정부가 세금, 국가의 수입, 존중, 명예에 관하여 합법적인 요구를 할 때에 그에 대한 순종이 모든 권세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넓은 의미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친다.

로마서 13:1-7 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정부가 국가 내의 외국인의 거주에 대한 법을 수립했을 때에, 이민자들의 입국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지위로 도착하는 지에 있어서 교회는 그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하지 말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 안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대우에 대한 이슈를 너무 빨리 로마서 13 장으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이 본문이 교회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하려는 것이 본문을 오늘날의 세상에 적용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법 이민자와 관련하여 이 세상의 법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 본문이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우선 이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볼 때에, 그리고 다가오는 역사의 진전에 따른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역의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절대적인 요구는 아니었음을 보아야 한다. 로마와 같은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불법화하고, 예배를 불법화하고, 또는 기독교의 독특한 삶과 신앙고백을 불법화하여고 할 경우에 로마서 13 장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정부의 법이 신앙의 삶과 위배될 때에 정부의 권위에 대한 거부는 언제든지 교회의 선택사상이 될 수 있었다. 로마서 13 장에서 바울이 의미한 것이 무엇이든지, 로마제국의 황제에게는 로마서가 불법적이지는 않아도 선동적인 기독교의 신학적 문서로 이해된 상태로 로마교회에 왔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그 이유는 로마서의 바울신학에 포함된 것은 황제가 로마제국의 “주인이요 신”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께서 주인이심을, 그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 로마서 13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 로마교회에 처음 읽혀졌을 때에 그 본문이 불법적인 문서였을 것, 적어도 정부관리들이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로마 정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을지라도, 권위에 순종하라는 로마서 13:1-7 로 인해서 그들이 로마서를 불태워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법이 공의로운지 또는 어떤 때에 그것이 불순종해야 할만큼 합법적이지 않은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로마서 13 장이 정부에 대한 불순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둘째로, 로마서 13:1-7 은 그 이전부터 이어지는 12 장과 함께 읽어야 한다. 12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2 장의 앞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친 후에 몇 절이 지나서 13 장 앞에서 바울이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한 나라의 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나은 삶에 위배되는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12 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가장 높은 법,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사는 법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며 살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적이 생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옳은 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핍박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므로 옳다고 강조한다. 다시 한번, 12장 전체에서 가르친 바울이 정부의 권위와 관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삶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 높은 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세상 정부의 권위와 갈등을 빚을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정부의 권위에 관계해서 일반적인 삶에 관해서 교회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정부와 같은 부정하고 패역한 정부를 통해서도 세상을 질서있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에 대하여 교회가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사랑의 법과,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모시는 지고의 헌신에 지속적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문자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지도자들은 나라의 법을 따름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구주의 다스리심에 그리고 용서, 은혜와 사랑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삶의 지고한 법에 지속적으로 근거를 두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대의 법을 언제나 연구하여 왔다. 그리스도의 법을 기준으로 한 법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인 분석은 국가의 법들이 기독교 신앙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가치와 지위를 손상하려 할 때에 교회로 하여금 여러 번의 항거를 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서 Dietrich Bonhoeffer 와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의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였으며, Martin Luther King, Jr.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미국 정부의 법에 항거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역사적인 사실과 이론적인 신학의 근거로 볼 때에, 국가의 법과 관련해서 곤경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절한 반응이 국가의 법에 항거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독일의 법에 관련하여 Dietrich Bonhoeffer 에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미국의 차별법에 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법에 항거해야 함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현재의 이민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필요가 있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불법 이민에 관한 논의가 여러 지역과 교회에서 진행되면서, 어떤 이들은 이민법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비록 죄는 아닐지라도 범죄라 여겨서, 그에 대한 가장 좋은 교회의 태도는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고발하도록 도우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된 상태, 즉 그들이 현재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끝이 나는 그런 죄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복잡한 여건들이 섞인 민감한 문제이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체류하는 삶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환경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합법적인 서류 없이 입국하는 것이 죄라고 또는 죄가 아니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한 가족의 처지를 동정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정부가 그들의 행동을 법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비록 어떤 이들이 불법이민을 죄라 심판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원래의 행동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어야 함에는 의견이 다르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되돌리고 바로 잡은 뒤에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혼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혼한 사람이 이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해서 이혼된 상태를 완전하게 되돌린 후에야 그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학대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아이는 평생동안 그 피해를 가지고 살아간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원할지라도 어떤 사람들과 화해를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와 대면하기조차 싫어하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조차 거부하고, 그래서 과거를 회복시킬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두 고쳐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산다. 그러므로 적법한 신분 없이 지속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우리와 전혀 다른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근시안적인 실수인 것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권리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여러 이민자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형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의 부재로 인한 그들의 취약한 모습이 성경의 오랜 전통, 즉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복음사역을 받을만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지 말고 사랑과 동정심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는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한 아무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의 사역과 성례의 삶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갈망을 심각하게 가질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옳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규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 전에 주셨던 말씀, 즉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인,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살았던 보니게인들과 다르지 않게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을 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만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금을 긋는 순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사이에 이방인이셨고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 있는 이방인을 우선적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분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누가 “밖에서” 우리의 “이웃”이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기 보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처하는 곳마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이웃으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 결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하고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하신 일을 그의 처지를 바꾸어서 유알하는 이민자로 만드신 것이었다. 그의 자손이

번창해서 한 나라를 구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그 후로부터 모든 이방인을 환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심어주셨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이방인”으로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이방인으로 오셔서 세상의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로 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셨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은 교회, 정부, 그리고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접하는 수백만의 이민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에 손쉬운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민자 형제 자매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과 신학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하나가 될 여정을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11-16).

VIII. 권고

A. 총회에서 이주 노동자를 논의할 때에 총회는 본 커미티의 위원장인 Mrs. Teresa Renkema, 리포터인 Mr. Chris Pullenayegem, 그리고 advisor 인 Dr. Scott E. Hoezee 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

B. 총회는 노동 이민자들에 관한 이슈들을 연구하고 논의하도록 본 리포트를 지역교회에 권고한다.

성경적인 확인

C. 총회는 본 리포트에 정리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들이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확증하고 있다고 권고한다.

1.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교회가 만나는 개인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인종, 배경, 법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환대할 것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살기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돌볼 것을 일관되게 가르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두를 환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교회 멤버십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
4.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와 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을 공정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는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한다.

교육과 인식

- D. 총회는 이사회에 지시하여 인종관계 오피스 (Office of Race Relations)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교단에 다문화 의식을 증진하고 교육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교단 내 에이전시들, 노회들, 그리고 각 지역교회에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간의 갈등을 해결할 자료와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 E. 총회는 이사회에 지시하여 교단의 관계되는 에이전시들이 지역교회들과 기독교 학교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에 대한 교회의 시각과 그들을 위한 사역에 관련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영적인 이슈들을 깊이 연구하고 논의하도록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안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 F. 총회는 지역교회를 권고하여 이민자와 새 신자들이 부딪히는 사회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안전에 관한 이슈들에 대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들로 보내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도록 한다.

근거: 이민에 관련된 경제적인 현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안에 거주하는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수백만의 이민자들의 현실은 우리 교회들이 목회하려는 여러 곳에 지속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커뮤니티가 이미 접하고 있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옹호와 공의

- G. 총회는 이사회에 지시하여 사회정의와 빈곤 관련 오피스 (Office of Social Justice and Hunger Action)와 캐나다의 정부관련 커미티 (Canadian Committee for Contact with the Government)로 하여금,

교단 내외의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정책과 이민자 옹호 전략을 개발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법한 신분이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들에 관해서 공정하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이민법을 개혁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H. 총회는 지역교회와 개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민자들을 지나치게 혹독하고 공의롭지 않게 대우하는 법과 실행은 비판하고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I. 총회는, 정부가 자국의 안전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수행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권고하여 궁극적으로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 또는 그러한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고, 국내에서 그들이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는 포괄적인 이민법의 개정을 지지하고 돕도록 한다.

J. 총회는 지역교회를 권고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다 공정하고 인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옹호하도록 한다. 그와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한다.

근거: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는, 현재의 법이 이민에 관련된 최근의 요소들을 다루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포괄적인 이민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CRC 교회는 법과 정책을 개정하는 큰 틀의 일부로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다루기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도울 수 있다.

자비와 동정의 사역

K. 총회는 교회와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교단을 촉구하여 이민자들을 위해서 자비와 동정의 사역을 펼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다음에 열거된 행동들을 포함한 사역을 펼치도록 한다:

1.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논의함으로써 그들이 사는 환경을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2. 합법적인 신분이 있거나 없는 이민자들이 겪는 곤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 음식, 의복과 쉼터를 사랑으로 제공한다.

근거: 성경은 외국인과 이방인들의 곤경에 마음을 쓰며, 소외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정을 베풀라고 가르친다.

과정

L. 총회는 2007 년도 총회로 올린 원래의 제안 (*Acts of Synod 2007*, pp. 595-96)에 담긴 본 주제를 잘못 다룸과 오해에 대해서 2007 년도 총회가 처음으로 표현한 슬픔을 재확인한다. 또한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총회는 CRC 에이전시들, 노회들, 이사회들, 그리고 각종 커미티들이 이슈들을 연구하고 논의할 때에 관련된 그룹들을 적절하게 대표하며 표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한다.

근거: 교회가 어떤 주제를 의논함에 있어서 그 이슈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혼란과 상처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M. 총회는 교회를 권고하여 이민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역하는 복음전도를 위주로 하는 교회들과 선교 파트너로서 동역하도록 한다.

근거: 많은 개척교회와 다양한 문화의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CRC 성도들은 그들의 사역에 파트너로 교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N. 총회는 본 리포트가 2007 년도 총회에서 부여받은 본 연구 위원회의 사명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고 감사함과 함께 본 위원회를 해산한다.

노동자 이민에 관한 연구위원회

Joel Carpenter
Rose Dekker
Gerard L. Dykstra (*ex officio*)
Scott E. Hoezee
Andrew C. S. Narm
Ramon Orostizaga
Duane Postma
Chris Pullenayegem, reporter
Teresa Renkema, chair
Daniel Vink

부록 A

캐나다로 간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다섯 인터뷰

인터뷰 1: 2007 년 11 월 9 일

Hans 와 Jenny, 1950 년대 초에 이민온 80 대 부부

1. 당신의 이민 경험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착했을 때에 개인이나, 교회나, 커뮤니티가 당신을 환영했습니까?

Jenny: 우리는 이민온게 아니고 이주해 온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우리는 집이 없었어요.

Hans: 제가 1948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집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나는 Jenny에게 오스트랄리아로 이민을 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 나는 캐나다로 가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을 알았지요. 당시에 정부보조가 없어서 모두 우리가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는 \$100을 지불했습니다.

“Field man”이라고 불리우는 1948년에 온 네덜란드 이민자가 사인을 해 주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농장에서 일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951년에 이민와서 영국에서 온 가족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Jenny: 나는 고등학교에서 4년간 영어를 배웠고 Hans도 영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남들처럼 고생하지 않았어요. 상수도가 없는 집에 사는 동안 세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네덜란드에서도 농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Hans: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농장을 1955년에 구입했어요.

2. 당신들의 이민에 교회, 목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Jenny와 Hans: 1951년에 첫번째 CRC 교회에 설립되고 모든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픽업해 왔습니다. 이웃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온 주일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 지역은 2차대전 이전에 온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는 모두 새로 온 이민자들이었어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교회는 빨리 부흥했습니다. 그랜드래피츠의 국내선교부에서 Adam Persenaire를 보내어 우리 이민자 그룹을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더치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그랜드래피츠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월급을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병원과 상점으로 데려다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어요. 1948년부터 1951년 사이에 온 사람들은 더 고생이 심했어요. 1951년과 1952년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서로 도와주었어요. 주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 때에 \$7,000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교회가 필요했었어요. 그만큼 단결이 좋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3. 당신의 법적인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Jenny: 몰라요, 이민자였을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합법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신분의 이름은 몰라요. 도착한지 5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캐나다로 왔어요. 전부다 캐나다 시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시민이 되지 않았어요.

4. 더치 커뮤니티 밖에 당신은 얼마나 관련되었습니까? 밖의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던가요?

Jenny: 문제 없었어요. 우리는 영국 사람들의 농장에서 3년을 일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낳았어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더치 커뮤니티 안에서 결혼했어요

5. 당신이 지금 당신의 농장에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여기 정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들의 경험과 비교해 주십시오.

Jenny: 그들의 환경은 참혹해요. 어떤 이들은 가족에 돈을 부치고, 어떤 사람은 번 돈을 여기서 다 씩니다. 자마이카는 그들의 수입 중에서 25%를 보내서 가족을 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인들 모두는 가족에게 돈을 부칩니다.

인터뷰 2: 2007년 11월 14일

지금은 홀아비가 된 Jelle은 1953년에 부모형제와 그의 형제의 여자친구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그의 형제는 이미 와 있었다.

1. 당신의 이민 경험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착했을 때에 개인이나, 교회나, 커뮤니티가 당신을 환영했습니까?

Jelle: 부모님은 40대였을 때에 일곱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 때 나는 15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병원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떠났습니다. 내 형제 하나는 이미 캐나다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민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두 자매가 이미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홀로 남겨지기 싫어하셨어요.

Jelle은 이민을 매우 좋은 탐험으로 생각했다. 그의 가족은 배로 떠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출발하기 6주 전에 비행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와 몬트리올을 거쳐 캐나다에 도착했다. 오는 동안 비행기 안에 불이 나서 결국 끄기는 했지만 그 후 그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악몽을 꾸곤 했다. 아저씨 한 분이 소개하셔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매달 \$100의 월급과 주택을 받았다. Jelle과 그의 형제들은 시간당 30센트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불평 한번 않으셨지만, 상수도가 없고, 옥외 화장실을 쓰고, 나무를 태우는 화덕에 음식을 만들고, 기름을 때는 난방기를 쓰면서 어머니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의 형제는 네덜란드에서 함께 온 여자친구와 도착한 지 일주일 안에 결혼하였다.

2. 당신들의 이민에 교회, 목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CRC 교회에서 보내준 “field man”이 캐나다에서 사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사람은 기차에서 내리는 더치 이민자들을 맞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CRC 교회를 필요로 하면 교회건물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주일에는 트럭이 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타운 안에 있는 작은 하얀 교회로 데려다 주었다. 거기 목사님은 Wiebe van Dijk 로 Adam Persenaire 의 후임이었다. 그 목사님은, Persenaire 목사님과 달리 자신도 최근 이민자이면서도, 일거리를 찾아주고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많은 이민자들이 General Motors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고 거기 노조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GM 노조에 가입한 CRC 성도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었다. Jelle 은 교회에서 학생부에 가입하였다. 거기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나이가 턴 에이져였는데도 그들은 매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지금 Jelle 은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독선적이었는지 의아해 한다. 교회는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장래 그의 부인이 될 여자의 가족이 1952 년에 캐나다에 도착하였다. 그 때 아이들은 학생부의 미팅에만 갈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가지않고 다른 이민자 아이들과 함께 하키게임이나 당구장에 가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주민 (DPs, displaced persons)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한번은 하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캐나다 아이가 Jelle 에게 달려들어 그가 신고있는 더치 아이스스케이트를 부숴버렸다. 그의 한 형제는 카톨릭 여자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양쪽 부모 모두 반대하였기 때문에 헤어졌다. Jelle 은 지금도 그의 부모가 카톨릭 여자아이와의 결혼을 말린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건물은 1954 년에 완공되었으며 그 후에 기독교 학교를 지었다. 한 RCA 목사가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은 기독교 학교에 관계하고 그래서 CRC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 이민자들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서 온 목사들은 매우 분리주의적이어서 거절하고 말았다.

3. 당신은 어떠한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가졌습니까?

Jelle 은 영어 교육을 받았고 엔지니어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른 교육을 받도 전기 기술자가 되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3 년간 영어 교육을 받았다. 6 주를 캐나다에서 지난 후에 전에 배웠던 영어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의 부모는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강습했던 영어 클래스를 들었다. 그는 15 세에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6 세에 시작하는 합법적인 노동 이전에 시작했지만, 고국에 있을 때에 이미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에 와서 다시 고등학교에 가기 싫어하였다. 그는 무역을 공부하기 원하였다. 그는 GM 에서 1954 년부터 1958 년까지 일했는데, 거기서 하는 단조로운 일을 싫어하였다. 그 즈음 그의 아버지가 전기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는 그의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 까지 거기서 일을 했지만 그는 GM 을 그만 둔걸 후회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고 시간이 빨리 흐리지 않았다. GM 에서 일하는 모든 이민자의 자녀들이 수입을 부모에게 주어 가정을 부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Jelle 도 처음 일년간 그렇게 하였다. 다른 젊은 노동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데에 돈을 쓰기도 하였다.

그가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한 가게에서 자전거를 \$52 에 팔았다. \$1 를 다운페이하고 매주 \$1 씩 일년을 갚도록 하였다. Jelle 은 그 주인이 \$1 에 자전거를 팔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그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하였지만 살 돈이 없었다. 그는 한 주에 \$1 씩 꼬박꼬박 지불하고 1 년 후에 그것은 자신의 자전거가 되었다.

4. 당신의 법적인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덜란드 정부는 그들이 캐나다로 가도록 권고하였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민자 신분이 주어졌으며 자신들을 스폰서한 사람의 농장에서 1 년간 일을 해야 했다. 5 년 후에 가족 모두가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시민이 되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시민이 되지 않았다. 그가 위해서 일했던 농장의 주인이 Jelle 의 이름을 캐나다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그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고 그의 더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건강한 사람들만 캐나다로 이민가도록 허락되었다. 당시에는 지역에 보건소가 없었다. GM 에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는 그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일을 그만 둔 후에는 자기기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였다. 건강보험을 효과가 있었다. 그의 첫째 딸이 세 달 미리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였다. 보험이 없었다면 병원비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5. 캐나다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그것은 어려웠다. 당시에 시간당 페이는 \$2 이었다. 1958 년에 그의 아버지는 이미 있던 사업을 구입하고 Jelle 은 거기서 일을 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사업을 계속 하였고 작년에 은퇴하였다.

인터뷰 3: 2007 년 11 월 14 일

Hank 와 Riek, 화훼농업을 하고 은퇴한 70 대의 이민자 부부

1. 당신의 이민 경험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Hank: 나는 Nijmegen 에서 자랐는데 전쟁중에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후 5 년 동안 거기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으며 인구는 많았어요. 나는 화훼사업을 공부했고 나의 사업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나중에 결혼하게 될 Riek 를 만났어요

Hank 는 캐나다로 이민갈 계획을 하고 있었고 Riek 도 동의하였다. 네덜란드 교회의 한 기관인 “기독교 이민 센터”에서 이민자들을 도왔다. 거기서 이민자들을 그룹별로 캐나다의 한 도시나 지역으로 소개를 하였으며 도착해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Hank 는 Nova Scotia 주로 보내어졌다. 거기에는 CRC 교회가 없어서 함께 가는 이민자들은 도착해서 교회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배를 8 일 걸려서 1953 년 5 월 8 일에 캐나다에 도착하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에

그의 주머니에는 10 길다를 가지고 있었다. 도착할 때 21 세가 되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40 을 받겠지만, 그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왔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동안 그의 가족에 함께 하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기차를 타고 Halifax 항구를 떠나서 내륙으로 향하여 가다가 홀로 어느 창고에서 내렸다. 그가 일하게 될 농장 주인의 아들이 픽업을 나왔는데, 그 때가 매우 추운 날 어두운 오전 2 시였기 때문에 그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Hank 는 집에 도착해서 2 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잤다. 그는 2 층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집을 떠나서 무엇을 하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집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 농장은 더치 카톨릭 가정이었다. 그는 그 농장에서 일을 하였지만 그 농장은 그에게 월급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1 년이 되지 않아서 다른 농장을 소개해 주었다. Hank 는 캐나다에 도착하면서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저녁마다 이웃으로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인근의 대학에서 그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거기서 배운 영어를 이웃들과 연습한 것이다.

Riek: Hank 를 만나고 나서 네덜란드에서 나는 몇 번 더 그를 만났어요. 그때 네덜란드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농장에서 열리는 리트릿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창고의 양쪽에서 잠을 잤어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약혼하고, 캐나다에는 그 다음 해인 1954 년 4 월에 도착했어요. 정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30 일 안에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 때 이민자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일에 집에서 일을 도운 후에 차를 빌려타고 Temperance Hall 이라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집에서 살다가 Riek 가 임신한 후에 한 낡은 농장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집에는 싱크 옆에 펌프가 있었고, 집 밖의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나무를 태우는 스토브가 있었다. Riek 에게 이것들은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익숙한 것들이었다. Hank 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해에 Hank 는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는 추구가 끝나기를 기다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 농장 주인을 그를 내보냈다. 그들은 화란사람들이 많이 사는 다른 타운으로 가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한 화람 사람의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2. 당신들의 이민에 교회, 목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40 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차를 얻어타고 다니면서 교회에 오고 가는데에 주말의 모든 시간이 들었다. 나중에 시카고의 교회로부터 국내 선교사로 온 Ralph Bos 목사가 도착해서 그 지역인 Kentville, Truro, Halifax 와 Prince Edward Island 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그의 지역에는 한 달에 한번 오게 되었다. 그 주일에 그는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영어로 설교하였다. 예배의 설교를 더치에서 영어로 옮기는 것은 큰 일이었고 그 과정에 논쟁이 있었다.

Riek: 주일은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 때는 모든 여인들이 임신한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여성들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겨울철에는 모이지 못하고 부활절부터 성탄절 사이에 모임들 가졌다. 그는 한번도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교회 후에 그들은 서로를 방문하며 다들 새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더치 사람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 인근에서 농업대학의 교장인 영국사람의 가족이 교회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의 소개로 Hank 는 카네이션을 키우는 큰 농장의 메니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농장은 Nova Scotia 와 New Brunswick 사이에 있어서 더치 커뮤니티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곳은 Truro 의 교회로부터 50 마일 떨어져 있어서 주일 예배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저녁예배는 나사렛 교회에 참석하였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Hank 의 두 형제는 가족과 더치 커뮤니티와 멀지 않은 곳에 살기를 원해서 온타리오의 Brampton 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여섯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였다. 그들 가족이 거기서 한 에이커 크기의 농장을 세운 후에 Leamington 에서 제품 메니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다시 거기로 이사를 가서 Lake Erie 호수가에 있는 전에 담배을 찌던 곳을 고친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이 살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는 18 마일 떨어진 Essex 에 있었다. 그는 그 곳의 기독교 학교에 깊이 관여하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며, 요리문답을 가르쳤다. 그는 늘 교회일로 바빴으며 그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음을 미안해 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11 년을 지내고 나이아가라 지역으로 이주해서 다시 다른 사람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작은 농장을 구입하고 그 곳의 채소농장을 화훼단지로 바꾸었다. 그가 그의 나라에서 가졌던 화훼농사의 꿈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터뷰 4: 2007 년 11 월 23 일

80 대 중반의 미망인, 우리는 우편으로 질문을 보냈고 그 녀도 편지로 응답하였다.

1. 당신 가족의 이민 경험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나요? 캐나다에서 당신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착했을 때에 누군가가 당신을 환영했습니까? 언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네덜란드,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민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45 년 이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는데 여러 해를 들여야 했어요. 공장은 부서지고, 사람들은 아무 것도 살 수 없었으며, 가족들은 살 집이 없었어요. 일거리는 제한되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환경은 조금 나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 결혼한 젊은 커플로 우리는 가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우리와 같이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지요. 자녀들이 있는 가족은 특별히 먹고 입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치와 연합군의 폭격, 그리고 모든 공장과 운송 시스템이 나치의 전쟁용으로 사용되면서 홀랜드는 황폐해졌어요.

또 하나 어려운 삶은 1944년에 있었던 개혁교회의 분쟁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복잡한 것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졌어요. 남편과 나는 미국, 괄백,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 모든 곳에 연락을 했지요. 그중에서 캐나다가 가장 적합했어요.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농업을 기반으로 이민 협약을 맺어서 이민을 장려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국토가 좁아서 새로운 농장을 만들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좋은 기회였어요. 네덜란드의 Zuiderzee의 새로 생긴 땅도 원하는 모든 수요를 공급할 수 없었어요.

네덜란드가 해방된 후에 캐나다로 가기로 하고 그곳의 넓은 땅과 가능성을 보고 싶어했어요. 캐나다는 홍보영화를 보내오고 이민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이민자를 받아들임에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캐나다 태평양 철도회사가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당시 캐나다에서 매우 작았던, 더치 배경을 가진 CRC도 많이 도왔어요. 이민으로 인해서 CRC교회는 성장할 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와 네덜란드에 기독교 이민 소사이어티가 형성되고 이민자들을 돕게 되었어요.

이민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Hague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캐나다에 집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도착 후 첫 해 동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의사의 건강검진을 첨부해야 했어요. 장애 자녀를 가진 가족은 이민신청이 거부되었어요. 이민이 허락된 후에 우리는 캐나다로 이주할 배 여행, 그리고 우리 집을 부칠 비용을 준비해야 했어요. 홀랜드의 경제 사정이 나빴으므로 우리는 그 돈을 거기서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구, 의복, 심지어는 우리가 곧 태어날 첫 아이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이들 물건까지 모두 다 팔아서 비용을 준비했어요. 양국 정부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후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민자를 위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한 손으로는 캐나다로 떠나는 자국 이민자들을 향해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모로코에서 오는 노동자를 환영하는 만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2. 당신들이 캐나다에 도착할 때에 그리고 초창기에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들은? 당신의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필요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했어요. 물론 같은 더치 사람인 점이 우리를 CRC교회에 이끈 것은 사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한다는 점에서 주일이 한 주의 하이라이트였어요. Winnipeg의 CRC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설립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 곳의 목사님은 A. Dissekoen으로 우리가 사는 Thunder Bay까지 자주 오셨어요. 홈 미션도 Portage la

Prairie로부터 M. Dornbush 를 보내서 도와주었어요. 이 분들은 자주 우리 집에서 머물곤 했어요. 처음 몇 년간 큰 한 가족과 같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환경에 있었고 서로를 도와주었지요.

3. 더치 커뮤니티 밖에 당신은 얼마나 관여했습니까? 더치 커뮤니티 밖에서 당신은 환영받았습니까?

우리가 캐나다에서 환영받았느냐구요? 답은 예와 아니오 둘 다입니다. 이웃들은 대체로 아주 좋았고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동부 유럽으로부터 온 이민자들과 혼동을 했어요. 동부 유럽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앵글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영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DPs (이주민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이 이름이, 특별히 남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잔인한 이름이 되었어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캐나다 사람들의 일거리를 빼앗아간다고 불평을 했지요.

그 후에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를 설립한 후에 우리 교회는 더치 교회로 알려지고 그 후에 세운 기독교 학교는 더치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동쪽끼리 모이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에도 그것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장로교회와 같은 이미 있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옳았을까?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캐나다에서 CRC 의 역사는 깊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 우리 이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처음인것 처럼 행동했지요.

우리가 1962년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때까지 가졌던 이웃의 공립학교의 부모와 아이들과 모든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때에 우리가 이미 있던 교회와 학교에 가입하여 그들이 하는 선한 일에 협력하였다면 더 많은 공헌을 캐나다에 할 수 있었을까요?

4. 당신이 캐나다에 이민왔을 때에 당신의 신분은 무엇이였습니까? 캐나다 정부는 당신들이 캐나다에 이민오는 것을 권장하도록 재정적으로 당신을 도왔습니까? 당신은 캐나다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의 신분은 이민자 (landed immigrant)였습니다. 올 때부터 우리는 5년이 지나서 캐나다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대부분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캐나다에서 환대받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정부는 언어교육에서만 우리를 도왔는데, 우리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너무나 바빴어요. 대가족의 아버지들은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졌지요.

5. 더치 이민자 커뮤니티는 당신의 이민에, 특별히 초창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여러 사람들, 싱글들, 결혼한 젊은 부부들, 그리고 자녀를 둔 대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특별히 대가족들은 잘 적응하고 대체로 가장 번성했어요. 그들은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일거리를 찾는 것이었지요. 아이들은 얻은 수입을 집으로 가져와서 한 통 안에 모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곧 자신들의 농장을 사는데 필요한 다운페이먼트가 마련되고, 이사를 가서도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어요. 젊은이들은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홀랜드에서 전쟁 기간중에 농장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삶이 전의 삶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들은 일상 언어를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쉽게 터득했어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자녀들부터는 영어에 완벽해졌어요.

Thunder Bay 에 있는 더치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의 북쪽의 네 개 주, Friesland, Groningen, Drenthe, 그리고 Overijssel 에서 왔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서부 큰 도시로부터 또는 New Brabant 나 Zeeland 에서 왔어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성격은 열심히 일하고, 매우 보수적이며, 강한 가족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충실한 교회의 멤버들이며, 사회환경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사물에 관대하지 않은,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독선적인, 그러나 교회와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6. “Field man”들의 역할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명되었나요?

온타리오 이민 소사이어티의 위원장은 내 남편이 캐나다 정부와 연락을 잘 할 것으로 알아서 그 지역의 이민을 돕는 “field man”으로 임명했어요. 그의 일은 일거리를 줄 농장을 찾아서 홀랜드에서 올 사람들을 스폰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곧 그는 그 지역의 길들과 농장들을 알게 되었고 홀랜드로부터 여러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것은 때로 어렵고 힘든 직업이었어요. 캐나다 농장주가 더치 이민자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잘못을 “field man”에게 돌리곤 했지요. 내가 위에서 성격을 열거한 그 더치 이민자들이 자기들을 초청한 농장주들을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거나 원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농장주들은 이민자들의 다 안다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첫 5년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60년이 지난 후에 돌아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골짜기와 산꼭대기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번성한 현재로 이르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땅에서 환대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캐나다의 다문화적인 사회에 공헌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전한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홀랜드에서 가지고 온 가치관, 신앙, 그리고 노동에 대한 윤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5: 2007년 12월 31일

Jack 과 Mary 가 쓴 이야기를 기초로

1. 당신 가족의 이민 경험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캐나다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착했을 때에 개인이나, 교회, 커뮤니티가 당신을 환영했습니까?

내 형제와 나는 홀랜드에서 주택판매를 했습니다. 전쟁중에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더치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일의 환경을 원했어요. 그 때 이미 Mary와 나는 6년간 지냈으나 우리가 같이 살 집이, 단 한 칸의 집도 홀랜드에서 임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형제의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부인이 별안간 숨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형제와 Mary와 나는 이민을 가기로 하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 Mary가 형제의 어린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로 가기로 했는데, 스폰서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일을 조용히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내 사업에 사람들로 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그것을 갚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Mary와 나는 결혼을 하고, 여권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비자가 우리가 캐나다로 가는데 있어서 무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건 여권에 찍혀진 스탬프였어요. 캐나다로 향하는 배는 만원이어서, 우리는 한 사람당 \$100씩을 더 지불하고 비행기로 갔습니다. 우리는 아이스랜드를 거쳐서 Newfoundland의 Gander에 도착해서 이민 검사를 마치고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스폰서가 없이 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토론토로 갔는데 거기 이민 관계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 목수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갔더니 또 다른 이민 관계자가 St. Catherines의 목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목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연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장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을 얻었습니다.

2.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당신의 이민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민 관계자가 우리에게 St. Catherines 지역의 더치 목사의 주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버스를 타고 Geneva Street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Persenaire 목사님은 그 때 집에 있지 않았고 그의 딸이 교회의 다른 성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들이 우리가 당분간 살 집을 찾아주었어요.

매주일 아침 우리는 오래된 픽업 트럭을 타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는 덥고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영어로 찬송했지만 설교는 더치로 들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이외의 많은 일을 했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새 이민자가 정착하는 것을 도와서 직업을 찾아주고, 살 집을 찾아주고, 아픈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일거리는 있었지만 이민오는 사람이 많아서 주택은 부족했어요.

내 형제와 나는 홀랜드를 떠난 지 일주일 후에 목수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두 주를 지내고 여름 통나무 집에서 세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우리가 홀랜드에서 부친 집이 도착하지 않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준 가구와 침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음 해에 우리는 현금을 지불하고 한 에이커의 땅을 사서 거기에 이층 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 날 허리케인 Hazel이 와서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토론토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구를 들여놓은 후에 허리케인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는 그의

죽은 아내의 동생에게 캐나다로 와서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캐나다에 와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 해 연말에 Mary 와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홀랜드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걱정하셔서 우리는 어머니를 오시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두 명의 새 손자를 보시고 우리의 새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두 주를 지내시고 우리가 캐나다에서 평안히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홀랜드로 돌아가셨습니다.

3. 당신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네덜란드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우리가 캐나다로 이민가기를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민자가 되었고 5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 시민이 되었습니다.

부록 B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인터뷰

(북서부 아이오와 의 멕시코 이민자들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

여기 사용된 질문들은 위에서 캐나다로 간 더치 이민자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유사하다.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이민 경험과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스폰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나 그들의 새 커뮤니티가 그들은 환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교회가 그들의 미국에서의 정착과 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은 이야기 하였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멕시코 이민자는 현재 복음주의 교회와 연결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며, 거기에는 또한 지난 몇 년간 히스패닉 이민자와 일을 한 사람들이 얻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은 모두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인데,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흔쾌하게 나누었으며, CRC 가 이민관계 이슈를 연구한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 들어온 그들의 경험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부터 매우 극적인 것까지 다양했다. 과거에 미국에 입국하기가 쉬웠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훨씬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와서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에서 불법입국을 돕는 코요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았다. 과거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쉬웠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현재 그들은 강을 하루만에 비밀스럽게 건너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달이 없거나 어두운 밤에 사막을 삼일에 걸쳐서 통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낮에는 수풀 속에 숨어 잠을 잔다. 그들은 몇 가지 간단한 것만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필요한 것도 모자랄까봐 나누어주지 않은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막에 물병을 숨겨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물에 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사막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를 같이 가지고 온다.

어린이들, 특별히 아기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떤 엄마는 국경을 넘을 때 두 어린 자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녀는 한 유명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자녀들을 찾았다. 그 엄마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죽어서 내부 장기를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저씨가 국경 근처에서 사라졌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국경 근처에서 갱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돈을 가로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종종 가족의 한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서 일거리와 숙소를 준비하고 그 후에 나머지 가족을 부른다. 한 가족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멕시코 사람에게에는 노동비자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고도 그것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자들은 정치적인 난민지위나, 억압받은 경험이나, 목회 자리나, 독특한 가족의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충당하기 어려운 직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직종을 통해서 좀 더 영구적인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들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한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대개 공식적인 스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종종 미국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적어도 그들로부터 초창기에 음식과 숙소들로 도움을 받는다. 일단 일거리가 정해지면 새 이민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나 집을 구할 때까지 남들과 같이 살면서 집세를 같이 지불한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오면서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세 식구의 가장은 그들이 Sioux Center 에 도착했을 때에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9,500 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 한 사람당 약 \$3,000 의 돈이 든다고 한다. 가진 돈도 없거니와 그들은 아무 재산도 없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이 여행을 한다. 보통 가방 안에 입을 옷만 가지고 온다. 겨울에 오게 된다면 의복만으로도 그들은 고생을 하게 된다.

북서부의 아이오와에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사역과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 히스패닉계 사람들만을 위한 두 개의 커뮤니티 사역이 있고 히스패닉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Amistad Cristiana 가 있다. 이러한 사역들은 인근의 교회들이 돕고 있다. 거기에는 또한 여러 교회들이 관련되어 히스패닉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들은 주로 음식, 의복, 주택의 가구, 그리고 번역과 통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그러한 도움에 감사해 하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또한 얼마나 인종에 의한 차별이 심한지 이야기한다. 그들과 관련하여 사역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위에 언급된 비영리 단체는 Justice for All 과 Amistad Cristiana 이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Mid-Sioux and Women, Infant, and Children maternal health care program (WIC)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멕시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입국한다. 합법적인 서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긴 시간과 비용이 큰 과정에 절망한다. 이민관계 서비스는 과중한 일거리로 고생하고, 때로 혼동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경찰들을 친구과 적으로 동시에 보고 있다. 자기들이 당한 억압이나 범죄행위를 고발했던 이민자가, 그들이 불법신분이었기 때문에, 체포된 경우도 있다. 자기

남편이 자신을 억압한 이유로 고발한 한 여성은 자기의 불법신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경찰로부터 도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남성은 마약 밀매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고발할 경우 자신의 불법신분이 탄로날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주민이 경찰을 신뢰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터인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모든 것을 팔고 왔으며 여기서 자녀들이 미국식의 삶에 익숙해졌고 돌아갈 경우에 많은 곤경이 따르기 때문이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발견하는 가능성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가능성은 많은 수입, 자녀들의 교육,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의료혜택, 그리고 멕시코에 남겨진 늙은 부모와 친척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겪는 큰 고통 중의 하나는 멕시코로 방문갔다가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병든 부모나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멕시코 이민자 사이에는 강력한 연대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이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시행했던 사면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더 손쉽게 영구적인 신분을 얻는 방법이다.

멕시코에서 오는 이민자와 현재 CRC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조상인 홀랜드의 이민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알아서 모든 이민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록 C

The Lighthouse (동대) Toronto: 불법 이민자를 위한 우리의 사역

The Lighthouse 는 CRC 의 봉사사역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그 기본 사역은 토론토 지역의 어린이들의 성경 프로그램이었다. 1981년에 우리는 지역의 CRC 교회들의 요청으로 난민 정착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후 우리는 교단의 구제 위원회인 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 와 협약을 맺어서 난민들의 정착과 함께 난민들을 위해 스폰서하는 사역을 토론토 노회를 도와서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난민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역에 관련하면서 약 1,000 명의 난민을 스폰서하며 그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었다.

난민 신청자와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늘어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많이 알게되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점차 성장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 사역은 커뮤니티 센터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당시에 우리는 새로운 이주자들을 위한 정착 서비스, 가족과 개인을 위한 카운슬링, 난민의 충격적인 고통을 완화할 치료,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 기술 교육, 경제 지원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영어 교육, 커뮤니티 건설 프로그램, 고령자 프로그램, 이민 정책 관련 서비스, 푸드뱅크, 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관련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그리고 영적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우리는 5 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베트남, 히스패닉, 중국,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봉사하고 있다.

봉사단체로서 우리의 철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이민 신분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다. 우리가 돌보는 이민자 그룹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난민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다. 불법 신분인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한 높은 위험, 이민관계자들에게 사기당할 염려, 여성들에게 더 많지만 일반적인 폭력에의 노출, 건강과 경찰의 보호 등 사회의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이민자들은 심각한 정서적인 불안과, 지금 가진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장래 언젠가 안전한 삶을 살고싶다는 희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추방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추방될 지 모른다는 공포와 온갖 착취에 드러난 취약점은 그들로 하여금 외부의 도움없이 그리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울만한 아무 정보없이 극도로 소외된 삶을 살도록 한다.

불법 체류자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견디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캐나다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폭력,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피해서 왔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난민자 지위를 신청하지만 거부되고 있다. 거부되는 이유에는 여러 배경이 있다. 우선 이야기할 것은 고통, 창피와 공포 등 어려움이 여러 문화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난민 프로그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와 이민 관계 컨설턴트들의 결함으로 그들은 난민들을 위해서 좋은 케이스를 만들 적합한 지식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자 신청이 한 번 거부되면 그들은 추방명령을 받는다. 그것은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까지 떠나지 않으면 체포명령이 떨어진다. 그들은 숨어지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의 증인으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에 또는 경찰이 쫓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에, 경찰은 그 사람도 체포되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됨을 의미한다. 불안과 위협이라는 이들 삶의 조건은 그들이 극도의 지하 생활을 하도록, 한 불법 체류자가 말한 바와 같은 “그들 속의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대략 200,000 에서 400,000 명의 불법 체류자가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에서 모여서 살고 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토론토 지역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러한 환경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지 목격하고 있다. 그들이 보통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된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The Lighthouse (등대) 사역은 그러한 네트워크 중의 하나이다. 적법한 신분이 없이 체류하는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자유롭게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분증에 대해서 묻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역은 그들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그들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맞추어져 있다. 우리 경험으로 볼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더 많은 가정 방문,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오리엔테이션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 그들을 위한 변호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제도적인 면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도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커뮤니티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하고 이민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록 D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들의 사례

Josefina 의 이야기 (2009년 1월)

Josefina 는 Mario 와 결혼하고 지금 열 넷, 열 하나, 그리고 두 살짜리 아이들을 두고 있다. 마지막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Josefina 의 가족은 10년 전에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그들의 장녀가 세 살되던 해에 납치를 당한 후에 그들은 멕시코를 떠났다. 그들은 경찰에 그 일을 신고했지만 경찰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권 사무소에 가서 의논을 했지만 그들은 멕시코의 제도로는 잃어버린 아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캐나다로 가기로 하였다. 난민 지위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케이스는 3년이 지난 후에야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신청은 거부되었다. 일 년 후에 그들에게는 추방명령이 내려졌는데, 짐을 싸고, 가진 것을 처분하고 멕시코로 떠나는데 두 주를 주었다.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딸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은 멕시코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캐나다에 남기로 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만들어보기로 하였다. Josefina 와 그의 가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주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였다.

Josefina 는 1999년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The Lighthouse 에 왔다. 그들은 처음에 새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레크리에이션과 약간의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여름 캠프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 후에 Josefina 는 그의 딸이 납치를 당해서 잃어버린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계속 찾아왔다. 그러는 동안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변호사는 그녀의 케이스에 관심을 둘 시간이 부족하였다.

The Lighthouse 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면들을 종합하여 전인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에 그들의 개인, 가족관계,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점 더 크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더 효과적인 대응을 찾을 수 있게 된다. Josefina 의 경우에 우리는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는 등 그녀의 법적인 면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찾아와서 가족캠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전 가족이 참여하는 카운슬링에 참여하였다. 그의 가족은 Mario 의 불안정한 일거리로 인해서 그의 고용주가

필요없으면 언제든지 주급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푸드뱅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신청을 하는데만 보통 삼 년이 걸리고 그 후에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다.

신청하는 동안 가졌던 합법적인 지위가 사라지고 불법신분이 되면서 그들의 삶은 극도로 변해갔다. 그들은 살던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졌고 아이들의 학교도 바꾸어야 했다. 그들이 가졌던 안정된 직업도 떠나야 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여러번 Mario 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구금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면 그의 가족 전체가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자신들이 완전한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우리는 The Lighthouse 에서 그녀의 가족이 아무 제한없이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Josefina 는 자발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적인 사람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 적법한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보살핌 속에서 키워야 한다. 크리스찬 봉사센터로서 우리의 의무는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섬김같이 봉사하는 것이다.

Hilda 와 Robert 의 이야기 (2009 년 1 월)

Hilda 와 Robert, 그리고 그들의 아들 Carlos 는 13 년 전에 칠레로부터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칠레에 있을 때에 Robert 는 그가 반대하는 정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Robert 가 먼저 도착했고 몇 달 후에 Hilda 와 Carlos 가 합류하였다. 그들은 몬트리올로 갔다. Robert 가 도착하자마자 난민 지위 신청을 하고 나중의 그의 전 가족이 보호를 위한 청구에 포함되었다. 그들은 도착한 후 몇 개월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목회자에게 감명을 받았다. 그들이 난민 신분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민 관계자를 함께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은 그 이민 관계자를 함께 만나고 그는 난민 지위 신청을 포기하고 숙련 노동자로 신청하라고 권면하였다. 캐나다의 수상이 몇 가정을 그런 지위로 초청할 것을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신청을 하는 동안 Mario 는 몬트리올 교외의 닭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거기서 몇 달 동안 일을 하였다. 그는 그들이 일 년 안에 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그들에게 토론토에 좀 더 여유있는 이민 사무소가 있으니 그리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 이민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남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이러한 서비스는 그의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Hilda와 Robert는 그 목사님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이민 관계자에게 지불하기 위해서 부부가 각각 세 가지 일거리를 가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하였다.

그들은 토론토로 옮겨가서 또 하나의 돕는 교회를 발견하였다. 일 년 후에 Hilda는 The Lighthouse에 찾아와서 자원봉사일을 시작하였다. 그 이민 관계자에게 돈을 다 지불한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있고 곧 영주권이 나올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횡령죄로 구속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Hilda와 Robert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완전하게 사기를 당하고 버려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조차 몰랐다. 그들은 후에 그 사람이 자신들의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런 신분이 없음을 뜻하였다. 사정은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없었다.

Hilda는 The Lighthouse에서 계속 자원봉사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녀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천식을 앓고 있는 Hilda와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천식 고통은 어려운 고통을 지나면서 더욱 심해져서, 의료도움도 받게 되었다. Robert는 그의 예전 사회보장 카드로 합법적인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어졌다. 그들은 이사를 해야 했고,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찾아야 했으며, 그 때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추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The Lighthouse는 그들에게 안전한 곳, 그들이 거기서 남들을 위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 적법한 신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이민 관계 정보를 공유하는 곳, 그리고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2006년에 Robert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그러나 일은 반전되었다. 전에 신청하려 하였던 난민 지위 신청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추방되기 전의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Pre-Removal Risk Assessment)가 주어졌다. 우리는 The Lighthouse에서 즉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하여 정부가 그에게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이 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뿐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십삼 년 동안 그들은 자기 나라를 방문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병든 부모를 만날 수 없었는데, Hilda의 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2009년 1월에 그들은 칠레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말 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무척 기쁘다. 우리는 이 가족으로 인해서 특별히 캐나다에 영주할 수 있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야기는 그들 가족의 법적인 면의 이야기, 캐나다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 준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이다.

부록 E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참된 이야기 (2008년 11월)

Maria N. Rodríguez de Vásquez

(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함)

그 날은 어느 화창한 이른 여름의 토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인 Danilo 가 교회의 기도모임에 가 있기 때문에, Ruth 은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거기 집에 웃음과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거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0 년 전에 중앙아메리카의 젊은 부부 Danilo 와 Ruth 이 자기들의 나라의 위협으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서 북쪽으로 떠나오게 된 이야기이다. Danilo 의 형제들, 아저씨들, 그리고 사촌들이 거기서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몇 명이 반대파에 의해서 사살되었다. 어느 날 Danilo 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만약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다음은 자신이라는 협박전화였다. 그날 밤으로 그는 Ruth 을 데리고 집을 떠나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불법체류일지라도 일을 할 수 있었다. Danilo 는 온갖 종류의 일을 하고 Ruth 은 미용사가 되는 공부를 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위협이 멕시코까지 따라올까 겁나서 고국에 연락할 수 없었다.

거기서 10 년을 지낸 후에 그들이 미국으로 갈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았지만,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서 그들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 꿈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기로 하였다. 그들은 튜브를 타고 Rio Grande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Ruth 이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더욱 두려워 하였다. 게다가 Ruth 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보는 것을 알아서 Danilo 는 더욱 그의 아내를 보살펴야 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것은 육체적이고 심적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이 지불하고 고용한 안내자는 사막을 지나는데 그들을 밤에만 가게하고 낮에는 잡히지 않도록 숨어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식량과 물이 부족하였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죽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들은 마음에 되새겼다.

Danilo 와 Ruth 은 미국 국경을 넘음으로 그들은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삶은 좋은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 미국에서 어여쁜 세 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교회에 출석할만큼, 특별히 살인의 위협이 없는 살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조용하게 살고 저축도 할수 있을만큼 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다른 모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운동경기에 연극에 아이들의 파티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다. 다만 한 가지 고통은 잡히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수감되거나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Danilo 와 Ruth 은 변호사를 고용하였지만 그 변호사는 일을 잘 할 줄 몰랐고 결국에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누군가는 합법 이민 서류에 날짜를 잘못 기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용만 받고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 Danilo 와 Ruth 은 영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를 믿을 수 밖에 없었음으로 그들이 사인하는 문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였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발생하였다. 이민국 직원이 그들의 집에 닥친 것이다. 그들은 Ruth 을 주방으로부터 데려나와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수갑이 채우고 발목에 체인에 채웠다. 그들은 Ruth 을 뺨에 태웠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두려움으로 울어대기 시작하였다. Danilo 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Ruth 은 미국식으로 수감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그녀는 옷을 모두 벗고 낡고 얼룩이 묻은 오렌지 색 수감복을 입게 되었다. 수줍고 얌전한 그녀에게 더 치욕스러운 것은 삼 주 동안 속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인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로부터 격리된 것이다. 아이들이 방문을 왔을 때 그녀는 아이들을 안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고 잘 들리지도 않는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Ruth 은 그녀의 자녀들을 다시는 안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중남미로의 Ruth 의 추방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수감중에 있다. 변호사가 수임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Ruth 은 아이들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사는데, 그와 처지가 비슷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산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가족의 끈으로 묶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신앙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류를 다루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공정하고 자비로운 결정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Ruth 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의 기도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주의: Maria N. Rodríguez de Vásquez 는 미시건 주 그랜드래피츠의 칼빈대학에서 스페니쉬를 가르치고 있다. 실제 인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에는 가명이 사용되었다.